

“공동 모금·나눔활동 펼치자”

자승 스님, 구세군 서울후생원 방문서 제안

조계종이 구세군에 부처님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에 공동 모금·나눔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7일 어린이 보육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부처님오신날의 모토가 ‘소통과 화합’이다. 앞으로 크리스마스나 부처님오신날에 불교계와 구세군이 함께 모금도 하고 나눔 활동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스님은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과 전명선 후생원 원장을 만나 “부처님의 자비를 연꽃에 비유하곤 하는데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비를 나누는 것은 어느 종교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다”며 연등과 후원금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구세군 전광표 사령관에게 연등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했다. 전광표 사령관은 “예전에 의정부와 서울역에서 여러 스님들이 구세군 모금활동을 같이 해주신 적이

있다. 원장스님의 방문이 구세군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구세군 방

문에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등이 함께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종교와 문화’ 주제로 31차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

한국종교연합은 5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와 문화’를 주제로 제51차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김문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종교의 역할’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봄으로써 개별성을 통한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상숭배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입격주의로 기독교 조형·공예예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통적인 예술문화를 적극 수용해 통상적인 예배 양식을 변형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통세시풍속, 통과의례 등을 종교생활과 연계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100자 뉴스

천주교 주교회의, 낙산사에 봉축메시지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희중 대주교 등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양양 낙산사를 방문해 교황청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5월 14일 양양 낙산사를 축하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회, 1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는 6월 11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2010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학회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총회에 앞서 김영두 회장이 ‘한국선학회 10년의 회고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주제발표로는 현대사회와 선의 재발견(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 선문답의 현대적 적용(김호기 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 등이 발표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사찰경영지도자 과정’ 개설

6월 3-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은)은 6월 3-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0년 상반기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개설한다.

행사에서는 ‘주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총론, 사찰총무재무행정, 사찰경영, 사찰부동산등기 실제 등 주지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부모님의 생애〉 독후감, 수상작 17편 선정

조계종출판사가 개최한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대회에서 이지안씨(대구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이현수씨(수원시), 우수상은 김장모씨(충남 계룡시) 김지훈씨(경기 성남시) 구희철씨(서울시) 신지원씨(서울 동대부고) 박나정씨(한양사대부고) 등이 차지했다. 이나은 기자

법정·김수환·강원용이 바라본 이웃종교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의 시각으로 이웃종교를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는 6월 3일 오후 4시 연세대 백양관 강당에서 ‘세 명의 거인들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장 스님(티베트박물관장)이 ‘법정 스님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장항리석불 35년만에 본래모습 찾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이 사적 제45호인 경주 양북면 장항리 석조불입상을 35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 박물관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실시해온 석불의 해체 및 보존처리를 마치고 육의전시공간에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종우 연구원은 “불상과 동일한 재질의 암석을 장항리 현지에서 구해 복원의 마감재로 사용해 시멘트로 복원된 부분의 시각적 이질감을 해소시켰다”며 “대좌 또한 장항리 절터에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 전시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중학생 천진불들의 축제

중립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 이하 금정중) 800여 명의 천진불이 5월 한 달 간 사경 및 백일장, 1080배 성취기도 등에 동참하며 부처님 오심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

금정중 학생들은 5월 7-2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음악시간 및 종교시간마다 ‘삼귀의’ ‘천양합니다’ ‘보현행원’ ‘부처님 오신날’ ‘정법가’ ‘사홍서원’ ‘산화가’ 등 실제 법회에서 부르는 찬불가와 습의를 지도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11일에는 학생 대표 및 이석연 교법사가 함께 인근의 금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면서 이웃돕기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5월 11일 오후 점심식 이후 교내 법당과 교문, 자비동산, 중앙 현관 등 학교 곳곳에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연등은 이달 말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2010부산연등축제 2010부산연등축제가 5월 16일 구덕운동장을 출발해 부산역광장까지 제등행진 후 특설무대에서 마련된 화향만마당을 끝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정진과 불자 예술단' '도유정 예술단' '들소리 난타팀'과 재가불자로 구성된 찬불가 율동팀 '플라잉'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박지원 기자

전국 차인들 차향기 가득한 축제

해남 대흥사, 초의문화제 및 대한민국차인대회 개최

전국 차(茶)인들이 모여 차향기 가득한 축제의 마당을 펼쳤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재)명원문화재단, (사)해남다인회와 공동으로 5월 13-16일 제19회 초의문화제와 제3회 대한민국차인대회를 대흥사 경내와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3일 전국 차도구 공모전을 시작으로, 15일 녹차만들기 체험 및 경연대회, 기념 다악제, 제2회 창작 다례복 경연대회, 16일 전국차인 일자리 한마당, 부도전에서 열린 '조사헌다례', 율법공양, 기념식이 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31회 초의상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이 초의 선사 부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에는 백린사 주지 여연 스님과 명원문화재단 제미경 대구지부장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흥사 부도전에서 열린 조사헌다례에서 범각 스님은 “역대 선사들에게 차를 올리는 것은 큰 영광이다. 하지만 대부분 초의 스님만을 생각하게 된다”며, “초의 스님이 있기까지는 대흥사의 많은 선사들의 차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의 다인(茶人)이라면 매년 1번씩은 초의 스님 부도에 들러 차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기자

4대강 중단 ‘미호천 솟대 세우기’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종교 사랑방’, ‘충북도내 환경단체’ 등이 주최하고 ‘충북4대강시민감시단’이 주관하는 ‘절체절명의 미호천 솟대세우기’ 행사가 15일 미호천 작전보 둔지에서 열렸다.

각 단체 회원과 6·2지방선거 출마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혜철 스님(육천 대흥사 주지), 혜전 스님(청원 석문사 주지), 김태종 목사(정주 살터교회), 이종섭 신부(성모성심성당) 등이 생명이

도회를 울렸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의 미호천 자연놀이로 미호종개그리기, 자연물 액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문화행사로 울림의 길놀이,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의 강을 위한 솟대세우기와 손수건 달기, 생명평화를 위한 삼배를 올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庚寅 四月初八日 慶祝 法語

宗正예하 석가산 대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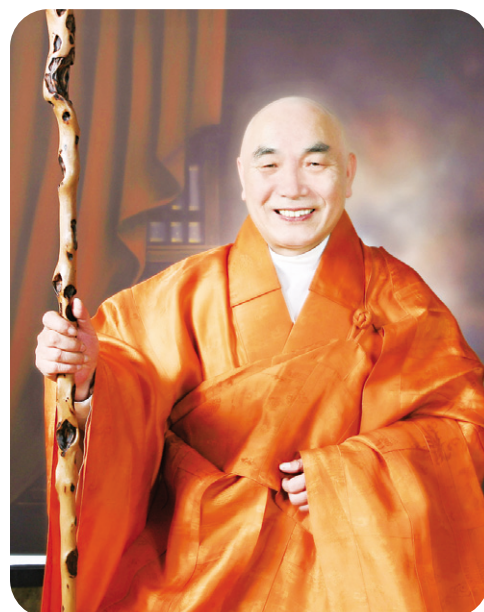
釋迦本務法 (석가본무법)

我亦阿曾慶 (아역아증경)

如是認得法 (여시인득법)

凡聖無有祝 (범성무유축)

석가에게 본래 법이 없거늘 나 또한 무엇을 일찍이 경축하겠는가 이와 같은 법을 증득하면 성인이나 범부가 경축할 것이다.



宗正예하 석가산 대선사

宗正 예하 석가산 대선사

원로최고의장 관산 대종사

총무원장 석능인

중앙총회의장 석묘각

중앙선원장 석법장

총무부장 석범일

사회부장 석진각

호법부장 석영산

국제부장 석월산

서울 총무원장 석법륜

부산 총무원장 석효천

사정원장 석현덕

울원장 석도안

교육부장 석현각

문화부장 석혜광

규정부장 석규봉

경남 총무원장 석혜천

충남 총무원장 석청화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4층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전화 053)325-5288 / FAX 053)325-4848 / E-mail : sambo111@hanmail.net